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에 있어서 주거계획 문제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Housing Complex Planning in the Ubiquitous City

김 미 연* 박 남 희** 최 진 원***
Kim, Mi-Yun Park, Nam-Hee Choi, Jin-Won

Abstract

Ever-develop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has changed the ways of life from that of industrial society to the information-oriented community, and is widely used in a variety of social and economic contexts. Besides, urban problems in today's society are intricately involved so that the possibility of any reliable breakthrough may not to be likely. To work out these complicated problems as well as to understand the crux of the matter more comprehensively, ubiquitous urban planning has been laid out, and as a result attempts to reflect this system are cautiously made in metropolitan areas.

However, most u-City planning, integrating ubiquitous technology, has focused on creating urban infrastructure and its services, therefore neglecting the importance of housing in urban space. Consequently, thorough u-City planning has yet to be defined in relation with urban space, and housing planning,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 user-oriented housing environment, needs to be urgently made. Centering on the importance of housing in the construction of an improved future urban environment,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role of urban environment planning where metropolitan residents can enjoy a comfortable and convenient life. As well, this research paper seeks to focus attention on the consideration for users that is often disregarded but requires reflecting in the u-City planning.

Keywords : Ubiquitous City, Housing Complex Planning,

주 요 어 : 유비쿼터스 도시, 주거계획,

1.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급속하게 발달하기 시작한 정보통신기술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생활양식을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 경제적 활동 분야까지 그 활용 범위가 매우 넓어져 가고 있다. 또한 현대의 도시문제는 매우 난해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다양하고 복잡한 도시문제들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통합적인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비쿼터스 도시(이하 u-City로 명기) 계획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여러 도시에 이를 반영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u-City 계획은 유비쿼터스 기술을 접목시키면서 도시의 인프라와 이를 통한 서비스 부분에 치중해 있으며, 도시공간의 가장 핵심적인 주거부분의 중요

성을 간과하고 도시와의 관계성 및 사용자 위주의 주거환경계획의 총체적인 개념 설정을 토대로 한 주거 계획은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에 실행되고 있는 u-City의 도시계획요소를 조사하여 이 계획에서 주거성이 배제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거성 고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u-City의 도시계획 특성을 파악하고 계획요소를 조사한다. 둘째, u-City 추진 현황을 조사한다. 셋째, u-City의 주거계획 현황을 조사한다. 넷째, u-City 구축 시 도시계획에서의 주거계획 문제를 검토한다.

본 연구는 살기 좋은 미래 도시환경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주거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보다 도시민에게 쾌적하고 원활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환경계획의 중요성을 일깨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기술로 인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사용자에게 대한 배려를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에 적극 반영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u-City 구축을 위한 도시계획 특성을

* 정희원(주저자),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박사과정

** 정희원(교신저자),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겸임교수

*** 정희원,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부교수

이 과제는 2008년 학술진흥재단 기초연구과제지원(공동연구)연구비 지원에 이루어진 결과의 일부임(과제번호 D00449).

과약하고 체계적인 주거계획을 위하여 도서관서베이를 바탕으로 한 내용분석방법을 실시한다. 연구 자료는 국내에서 간행된 u-City 관련 정부 간행물, 보고서, 단행본,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한다. 자료분석방법은 최근의 u-City 계획 사례를 통하여 도시계획요소 중 주거계획요소를 도출하여 백분율, 빈도분석 등의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행한다.

II. 도시계획 특성

1. u-City 계획의 특성

1) u-City 및 u-City 계획 개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첨단사회는 과거의 산업 사회의 도시기능과는 질적으로 다른 장소에 살고 있으며, 정보화의 급속한 확산은 새로운 지식과 정보로 가득 찬 새로운 형태의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첨단 기술의 발달로 인한 도시기능의 변화는 기존에 도시계획의 기본 개념으로는 그것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u-City는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서비스가 도구가 아닌 환경으로서 도시공간에 융합된 지능형 미래도시¹⁾로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와 기능을 얻을 수 있는 친환경·첨단·자급자족형·지속가능한 구조의 도시개념²⁾을 포괄하고 있다.



그림 1. u-City의 개념도(출처: 국토연구원, 2005)

이러한 개념의 u-City 계획은 정보화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계획으로서 기존 도시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 미래 도시공간과 인간 활동에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을 적용하여 인간·기술·공간이 융합되는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구현, 운영, 관리하기 위한 위상구조, 계획대상 설정, 비전 및 목표 수립, 내용 및 추진계획 수립, 집행 절차 등을 포함한다.³⁾

2) u-City 계획의 특성과 문제점

- 1) 김정미 외(2005), u-City로 바라보는 미래도시의 모습과 전망, 유비쿼터스사회연구시리즈 제8호, p.5
- 2) 이병철 외(2007), u-City 사업모델과 u-서비스, TTA Journal No.112, p.73
- 3) 김정훈 외(2007), u-City 구현을 위한 계획체계 정비방안, 국토연구 2007-36, 국토연구원, pp.36~37에서 재정리

과거 도시계획의 주요 과제는 사람들의 교류를 원활하게 하고 시민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도로, 광장, 철도와 역, 주거지와 공원 등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시대는 사람들 간의 교류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물, 사람과 공간 등의 도시민을 중심으로 한 물리적, 기술적 구성요소와의 접속과 교류가 활발히 일어남에 따라 도시계획의 영역은 전통적인 물리적 공간을 넘어선 가상공간까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⁴⁾

국내의 도시계획은 아직까지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에 머물러있어 새로운 사회적 수요를 정상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특성을 고려치 않은 획일적인 개발과 종합적인 관리 정책이 마련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 국내의 u-City 구축 사업은 구축목적에 따라 비즈니스의 활성화, 편리한 주거생활, 산업혁신 등으로 분류되어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실행되고 있으나, 국가정책과 기술 위주의 u-City 개발 계획으로 지역시민의 문화적, 사회적, 기능적 도시만들기의 실천적 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차세대 성장 동력의 중심인 스마트홈 연구 또한 정보네트워크 중심의 요소기술들의 개발과 기술 공급적 측면에서의 연구로 진행되고 있다.⁵⁾

2. U-City 계획요소

u-City는 IT 인프라, 기술 및 서비스를 도시의 다양한 구성요소에 적용한 미래형 첨단도시로서,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편리하고, 안전하며,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u-City의 서비스 수요는 도시기반시설물관리, 환경/재난재해의 대응, 행정 지원, 보건복지, 교통, 문화/관광서비스 등이며,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서비스 적용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의 u-City 계획은 이러한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5개의 u-City 계획요소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제공되는 서비스는 아래의 <표 1>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표 1. u-City 계획요소

항목	내용
안전성	u-방법/방재, u-카드, u-Safety, u-재난/재해방지 등
건강성	u-Health Care, u-의료, u-보건/복지, u-원격진료, u-물순환 등
편리성	u-Home, u-Traffic, u-시설물관리, u-행정/민원, u-물류, u-Learning, u-Biz(마케팅), u-Gallery, u-Farming, u-관광, u-전시 등
쾌적성	u-환경관리시스템, u-문화, u-여가/오락, u-Green 등
첨단성	u-Convention, u-School, u-Library, u-Transportation 등

출처: 주거환경요소의 중요도 분석에 관한 연구(최윤아 외, 2008)과 희망한국 실현을 위한 u-City 구축 활성화 기본계획(정보통신부, 2006)에서 재구성

- 4) 김철수(2006), 도시공간의 이해, 기문당, p.249에서 재정리
- 5) 윤용집(2007), 유비쿼터스 공간 기반 스마트 홈 서비스 시나리오 개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3권 제8호(통권226호), p.83에서 재정리

III. u-City 추진 현황

1. u-City 구축 추진 현황

현재 u-City 구축을 위한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특별시·광역시 7개소와 도 4개소, 시·군 27개소를 대상으로 수행되고 있다.

표 2. u-City 추진지역

광역시·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10)	고양, 광명, 김포, 동두천, 성남, 수원, 용인, 평택, 파주, 화성
		강원(3)	강릉, 용평, 평창
		충청(5)	공주, 부여, 아산, 연기(세 종시), 충주
도	강원, 충북, 충남, 경북	전라(2)	익산, 정읍
		경상(6)	경산, 구미, 마산, 창원, 통영, 하동
		제주(1)	제주

출처: 2008년 u-City 추진현황과 과제(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8)

광역시·자치단체(85.7%)는 사업수행경험이 많은 반면 기초자치단체(40.5%)는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u-City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기초자치단체 15개소 중 8개소가 경기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전라도는 광역규모로 u-City 사업수행 경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u-City 사업수행 현황

모집단	광역시·자치단체			모집단	기초자치단체		
	전체	경험	비율		전체	경험	비율
16(7+9)	14	12	85.7 %	77	37	15	40.5 %

출처: 2008년 u-City추진현황과 과제(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08)

2. u-City 구축 추진 내용

u-City 구축을 위한 추진 내용으로는 크게 유비쿼터스 기반 정보화전략계획(USP) 수립단계와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2007년도의 경우 u-City 구축 활성화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u-지역정보화기본계획, 혁신도시계획, 각종 선도사업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대상의 범위는 기존의 도시모델링, 혁신·신도시 건설 등 국가 전역에 걸쳐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정보화사업과 u-City의 범위가 모호하며 GIS 등 기존 정보화 사업의 수행내용을 제출한 지자체가 다수이다.

3. u-City 사업수행의 장애 요인

기존 행해지고 있는 u-City 구축사업에서 지자체들이 겪는 애로사항의 경우 법제도 미흡(74.1%), 예산부족(63.8%), 서비스 모델 부족(51.9%) 순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지자체들은 재원조달, 관리주체, 운영인력, 설치장소, 서비스 모델 등 u-City 사업 추진의 근거 제시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또한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관리에 관한 규칙(경찰청),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환경부) 등 중앙정부에서 법·제도를 정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u-City 구축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IT기업들이 지적하고 있는 애로사항의 경우 예산부족(71.4%), 법제도의 미흡(42.9%), IT인프라 및 서비스 모델, 사례 부족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사업추진에 필요한 적정예산의 확보와 IT인프라가 미흡하여 서비스 구현이 지연되거나 보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법제도와 서비스 모델 및 선도 사례가 부족하여 지자체 담당자들의 불신이 팽배하고 있다.

IV. u-City 주거계획 현황

1. 미래도시의 주거계획

초고속인터넷망의 확산에 따라 홈오토메이션(Home Automation)을 시작으로 홈네트워크(Home Network)를 거쳐 유비쿼터스 개념이 적용된 지능형 주거가 새로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지능형 주거에서는 유비쿼터스 환경 요소들이 사용자 요구에 적합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게 되었다. 기술적 발전과 더불어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라 주거공간계획은 건강한 삶, 보람차고 충실한 인생,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 고령인과 장애자의 자립을 고려하여 생활의 편리함은 물론 삶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특성은 쾌적한 주거환경이라 할 수 있다.⁶⁾

2. u-City 계획에서 고려해야 할 주거성

도시의 물리적 환경 중 주거환경은 전체 면적 가운데 70% 이상을 차지할 뿐 아니라 도시민에게 가장 기본적인 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u-City의 계획요소 항목을 고려하고, 세계보건기구(WHO)가 건강한 주거환경을 위해 제시한 안전성, 건강성, 편리성, 쾌적성의 4가지 질적 목표와 더불어 정보화에 따른 첨단성을 추가하여 5가지 항목을 u-City 계획에서 고려해야 할 주거성으로 간주하며, 그 특징은 다음의 <표 4>와 같다.⁷⁾

표 4. u-City 계획의 주거성

주거성	내용
안전성	거주자의 안전을 위한 서비스
건강성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주거환경
편리성	생활의 편리함을 지원하는 요소
쾌적성	주거환경의 쾌적성을 도모하는 서비스
첨단성	네트워크를 이용한 첨단 장비의 지원

6) 윤용집(2007), 유비쿼터스공간 기반 스마트홈 서비스 시나리오 개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3권 제8호(통권226호), p.86에서 재인용

7) 최윤아 외(2008), 주거환경 요소의 중요도 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4권 제9호(통권239호), pp.123~132

3. 국내 u-City 사업의 주거성 사례조사

본 연구는 기존 행해지고 있는 u-City구축사업의 추진 현황(2007~2008년도 기준)에서의 주거계획에 대해 앞장의 <표 4>에서 언급한 u-City 계획에서의 주거성 5개 항목에 따라 조사를 시행한다. 계획요소내용은 사례조사 문헌에서 주거성 5개 항목에 해당하는 서비스 위주로 공통된 내용을 선정하였고, 총28개 항목에 대해 조사하였다.

1) 특별시·광역시별 사례조사

특별시·광역시별 주거성을 조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조사결과 서울과 대구가 21.3%로 지역별로는 가장 높았는데 서울은 안전성 부분이 계획이 잘 이루어지고 대구는 건강성 부분의 계획이 더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두

도시 모두 편리성 부분은 모두 높게 나타나 u-City 계획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첨단성 부분은 아직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주거성 측면에서 보면 편리성이 4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도별 사례조사

도별 주거성을 조사한 결과 <표 6>과 같이 15.7%로 충남, 전북과 경남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거성 측면에서는 안정성이 5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충남지역과 경기지역의 경우 편리성부분의 계획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경기지역의 경우 안전성 측면의 계획이 다른 지역에 비해 잘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첨단성과 쾌적성 부분에서는 아직 전 지역에 걸쳐 계획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특별시·광역시별 u-City 사업의 주거성 분석

주거성 항목	계획 요소 내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계
안전성	u-방법/방재	0	0					0	3
	u-카드	0							1
	u-Safety	0		0					2
	u-재난/재해방지	0	0			0			3
	소계	4	2	1	0	1	0	1	9(14.8%)
건강성	u-Health Care		0	0					2
	u-의료			0					1
	u-보건/복지			0		0			2
	u-원격진료	0	0						2
	u-물순환						0	0	2
소계	1	2	3	0	1	1	1	9(14.8%)	
편리성	u-Home	0					0		2
	u-Traffic	0	0	0	0		0	0	6
	u-시설물관리			0					1
	u-행정/민원	0				0			2
	u-물류		0		0	0		0	4
	u-Learning			0		0			2
	u-Biz(마케팅)			0	0				2
	u-Gallery					0			1
	u-Farming								-
	u-관광	0	0	0					3
u-전시	0			0	0			3	
소계	5	3	5	4	5	2	2	25(42.6%)	
쾌적성	u-환경관리시스템	0		0				0	3
	u-문화	0		0	0	0	0		5
	u-여가/오락								
	u-Green			0			0		2
소계	2	0	3	1	1	2	1	10(16.3%)	
첨단성	u-Convention		0	0	0				3
	u-School								-
	u-Library	0							1
	u-Transportation (철도/항만/항공)		0		0			0	3
	소계	1	2	1	2	0	0	1	7(11.5%)
총계	13 (21.3%)	9 (14.8%)	13 (21.3%)	7 (11.5%)	8 (13.1%)	5 (8.2%)	6 (9.8%)	61 (100.0%)	

표 6. 도별 u-City 사업의 주거성 분석

주거성 항목	계획 요소 내용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안전성	u-방법/방재	0			0						2
	u-카드	0									1
	u-Safety	0									1
	u-재난/재해방지					0		0	0		3
	소계	3	0	0	1	1	0	1	1	0	7 (13.7%)
건강성	u-Health Care	0			0	0		0	0		5
	u-의료							0			1
	u-보건/복지	0	0			0		0			4
	u-원격진료										-
	u-물순환										-
소계	2	1	0	1	2	0	3	1	0	10 (19.6%)	
편리성	u-Home				0			0			2
	u-Traffic	0			0	0	0			0	5
	u-시설물관리	0		0	0	0			0		5
	u-행정	0				0		0	0		4
	u-물류				0						1
	u-Learning										-
	u-Biz(마케팅)		0								1
	u-Gallery										-
	u-Farming				0		0	0			3
	u-관광		0					0	0	0	4
u-산업	0		0	0						3	
소계	4	2	2	6	3	2	3	3	2	27 (52.9%)	
쾌적성	u-환경관리시스템	0				0					2
	u-문화		0			0		0			3
	u-여가/오락										-
	u-Green										-
소계	1	1	0	0	2	0	1	0	0	5 (9.8%)	
첨단성	u-Convention									0	1
	u-School										-
	u-Library								0		1
	u-Transportation (철도/항만/항공)										-
	소계	0	0	0	0	0	0	0	1	1	2 (3.9)
총계	10 (19.6%)	4 (7.8%)	2 (3.9%)	8 (15.7%)	8 (15.7%)	2 (3.9%)	8 (15.7%)	6 (11.8%)	3 (5.9%)	51 (100.0%)	

V. u-City 도시계획의 주거계획 문제

1. 도시계획의 성격

도시계획의 기본 이념은 도시에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제반 활동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호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게 하는 종합적인 시가지 조성계획을 이루는 것이다. 도시계획은 토지이용과 건축물에 제한을 가하게 되는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주택지 조성사업·공업용지조성사업·재개발사업 등 도시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넓은 의미로 볼 때 지역 및 도시계획 분야의 대상은 국토 및 지역계획·도시계획·공원 및 관광지계획·공업단지계획·주택단지계획을 포함한다. 실제로 도시계획이 토지이용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면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도시계획과 동일시하여 보기도 한다.

2. u-City 도시계획의 주거계획 문제

1) u-City 도시계획과 기존의 토지이용계획 비교

기존의 도시계획과는 달리 u-City는 IT 인프라, 기술 및 서비스를 도시의 다양한 구성 요소에 적용한 미래형 첨단도시를 계획하여 편리하고, 안전하며,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u-City 서비스는 도시기반시설 물관리, 환경/재난재해의 대응, 행정지원, 보건복지, 교통,

문화/관광서비스 등에 초점을 맞추어 안전성, 건강성, 편리성, 쾌적성, 첨단성 등의 계획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u-City 계획은 기존의 도시계획처럼 토지이용이나 건물 등으로 이루어지는 물리적인 시가지나 생활환경 조성보다는 u-City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 결과를 도시민이 어떻게 향유할 수 있게 하는가와 연결되어 있다. 즉, 안전성, 건강성, 편리성, 쾌적성, 첨단성으로 대변되는 u-City 계획요소별 각종 시설과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서비스까지 종합하는 특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u-City 사업에서는 각종 시설이 가져오는 서비스 내용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기존의 도시계획에서 토지이용 계획에서 고려하던 주거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크게 비중을 두지 않게 된다. 즉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인구, 산업 및 택지수요 예측, 주거수준 설정 등과 같은 토지이용계획의 기본 지표 설정이나 주거단지계획이 우선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특별시·광역시·도별 u-City 계획 검토 결과

현재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별시·광역시·도별 u-City 계획을 검토한 결과 시·도별 특성에 따라 주거 계획이 진행되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기술 위주 개발의 편리성 부분에 치중하고 있으며, 주거계획의 궁극적인 목표인 쾌적성 부분의 계획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의 기본인 주거공간에 대한 계획보다는 교통, 물류, 관광, Biz부분에 계획이 편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대부분의 계획이 서울과 그 외곽도시 또는 경기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분야별로는 교육이나 환경계획보다는 산업, 관광, 물류에 치중하고 있어 u-City 건설의 중추적인 인재 양성에 소홀할 뿐만 아니라 지구촌 각 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관리 또는 보존의 측면에서의 계획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위주의 개발로 편리성 측면에 대한 고려가 많이 이루어진 반면 이러한 기술을 활용한 안전이나 보안에 대한 철저한 서비스 계획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첫째, 국내의 u-City 도시계획 특성은 구축 목적이 다양하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실행되고 있으나, 국가 정책과 기술 위주의 u-City 개발 계획으로 하향식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고 IT 기술 위주의 기술 개발과 공급에 치중되어 있다. u-City의 계획요소는 안전성, 건강성, 편리성, 쾌적성, 첨단성 등의 5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다.

둘째, u-City 추진 현황을 조사한 결과 특별시·광역시 7개소와 도 4개소, 시·군 27개소를 대상으로 수행되고 있었다. 광역자치단체는 비교적 사업수행 경험이 많은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었다. u-City 구축을 위해 각종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의 범위

는 국가 전역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기존 정보화사업과 u-City의 범위가 모호하여 기존 정보화 사업을 답습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즉 아직까지 사업의 목표나 수행내용이 구체적이거나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고 또한 방법론이 체계화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자체가 겪고 있는 법제도 미흡, 예산부족, 서비스 모델 부족 측면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특별시·광역시별 주거성을 조사한 결과 서울과 대구가 지역별로는 가장 높았다. 반면에 첨단성 부분은 아직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도별로는 주거성 측면에서 충남, 전북과 경남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직까지는 도에 비해 특별시나 광역시가 u-City사업을 더 많이 하고 있어 주거성 부분에서도 상대적으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요소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특별시·광역시·도별 자치단체에 따라 사업이 이루어지고 재정능력에 따라 범위가 정해지기 보다는 도시민이 질적인 삶을 누릴 수 있기 위해 요구하는 사업적 요구에 따라 u-City 계획이 수립 및 시행될 수 있도록 균형있는 발전계획이 필요하다.

넷째, u-City 계획은 기존의 도시계획과는 달리 u-City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 결과를 도시민이 어떻게 향유할 수 있게 하는가와 연결되어 있다. u-City 사업에서는 각종 시설이 가져오는 서비스 내용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기존의 도시계획에서 토지이용계획에서 고려하던 주거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 즉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인구, 산업 및 택지수요 예측, 주거수준 설정 등과 같은 토지이용계획의 기본 지표 설정이나 주거단지계획이 우선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 김정미 외(2005), u-City로 바라보는 미래도시의 모습과 전망, 유비쿼터스사회연구시리즈 제8호, p.5
2. 김정훈 외(2007), u-City 구현을 위한 계획체계 정비방안, 국토연 2007-36, 국토연구원, pp.36~37
3. 김철수(2006), 도시공간의 이해, 기문당
4.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1995). 도시계획론. 형설출판사. pp.131~132, pp.221~222
3. 이병철 외(2007). u-City 사업모델과 u-서비스, TTA Journal No.112, p.73
4. 윤용집(2007), 유비쿼터스 공간 기반 스마트 홈 서비스 시나리오 개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3권 제8호(통권226호), pp.83~90
5. 최윤아 외(2008), 주거 환경 요소의 중요도 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4권 제9호(통권239호), pp.123~132
6. u-City 추진현황(2007~2008) 보고서, 한국u-City 협회, 2008